

“학점 교류 넘어 공동학위”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초읽기

내년 봄부터 10개 국립대 학점교류 국공립 대학 통합 네트워크 청신호 추후 지역 국립대까지 확대 가능성



이르면 내년 봄학기부터 서울대를 포함 10개 국립대가 학점교류를 추진한다.

“전북대에서 강의 듣고 서울대 학점을 이수한다.”

국내 거점국립대가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르면 내년 봄학기부터 서울대를 포함 10개 국립대가 학점교류를 추진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은 단순히 ‘학점 교류’ 수준을 넘어 공동 학위제를 운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 중 하나인 ‘국공립 대학 통합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대 법인 서울대와 전국의 9개 거점 국립대학이 이르면 내년부터 학점교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대학이 아닌 다른 지역 대학의 강의를 들어도 소속 대학 학점을 이수할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0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거점국립대학교 학생 교류 활성화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국립대 법인으로 운영되는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거점국립대 간에 학점 및 학사 교류가 이뤄진다.

이번 교류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과 학생 이동이 자제되는 상황에서 논의가 급진전했다. 협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거점국립대 재학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이 아닌 다른 거점 국립대에서 수업을 듣고, 자신이 소속한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진행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지만,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의 경우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서는 ‘거점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업’을 통해 이번 2학기부터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학점교류’ 시스템과 달리 소속 대학을 통해 수강신청이 이뤄지고, 수강 이후 학점이 그대로 부여되는 시스템이다.

거점국립대학원격수업 학점교류 사업은 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 국립대학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

됐다. 2학기 진행 이후 보완점 등을 파악해 점차 수강과목을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총장들은 이번 학점 교류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가는 기초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은 기존 지방 불균형,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제기된 거점국립대 통합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올해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맞물리면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서울대는 일단 통합 네트워크 논의에서 빠졌으며, 학점교류까지만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 아닌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거점 국립대학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대학의 학점교류는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교류 시기와 교류자격, 평가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으로 각 대학은 협약이행을 위해 교류 자격과 평가방식에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프라를 공유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학 간 학점과 학사 교류가 확대되면 대학 교육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돼 교육의 질도 한결 높아지고, 대학 서열화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대학간 공동 연구도 진행할 수 있어 연합대학과 기업 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도 가능하다.

추후 거점 국립대를 넘어 지역 국립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0개 대학 이외의 지역 중심 국립대도 참여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광병선 군산대 총장은 “국내에 거점 국립대 9곳, 지역 중심대 19곳, 교육대학 11곳,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까지 해서 총 41개교가 있는데, 10개 거점 국립대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우는 또 다른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역 중심대의 경우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지역 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국립대 네트워크 구성 논의에 지역 중심 국립대도 빠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동국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동국대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인 IR(Institutional Research)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대학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4일 동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해 윤성이 총장 취임 후 대학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IR팀을 신설하고 관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IR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9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구축됐다. 이어 IR시스템 특허등록을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지난 달 12일 특허출원 완료 후 서비스를 오픈했다.

IR시스템은 ▲민원예측 ▲학부생 중도탈락 예측 ▲핵심성과지표(KPI) 실적 분석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 등교원, 직원 대상으로 3개 분야(경영, 행정, 교내외평가, 교육연구) 13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오른쪽)김일목 삼육대 총장, 삼육대학교회 도르가회 유영환 회장 /삼육대

세종대-기보 U-TECH밸리 사업 추진

(대학 기술 사업화 지원)

세종대, 기보에 우수기업 추천 추천기업 투자·컨설팅 등 지원

세종대는 최근 기술보증기금과 ‘대학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U-TECH 밸리)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U-TECH 밸리’는 대학 소속 교수와 연구원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 추가 R&D, 사업화 자금의 단계별 지원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하고 기업공개(IPO)까지 지원한다.

세종대는 이번 협약으로 이공계 교수 및 석·박사 연구원의 창업 7년 이내 우수 기술 기업을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추천받은 기업에 창업교육, 보증, 투자, 기술이전, 인증, 컨설팅 등 창업부터 Exit까지 금융과 비금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산학협력단 이수용 단장(오른쪽)과 기술보증기금 정운모 이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부산디지털대 심리상담센터, 교육연수인증기관 승인 부산디지털대 심리상담센터는 한국상담학회에서 교육연수인증기관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심리상담센터가 교육연수인증기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수련생들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사례회나 특강,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자격증 취득 수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빅데이터·AI 활용 인력 양성

아티웰스와 양해각서 체결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데이터사이언스센터는 지난 2일 아티웰스와 둔암수정캠퍼스 행정관 회의실에서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동산 및 자산관리 인력 양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기현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장, 이성건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소장,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아티웰스는 부동산 세금계산, 상속 증여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과 공인 중개사 전용 서비스를



(왼쪽부터) 이성건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소장, 윤기현 연구산학협력단장, 이선구(썬아티웰스 대표이사) /성신여대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및 자산관리 인력 양성, 산학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펼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1학년 학생 전공선택 지원

‘전공선택 디딤돌’ 사업 실시

덕성여대가 1학년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전공선택 디딤돌’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덕성여대는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 전원(유아교육과, 약학과 제외)을 단과대학별로 통합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생들은 전공이 아닌 단과

대학별로 입학해 1학년 동안 전공 탐색 기회를 가진 후 1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한다. 이번 사업은 1학년 학생 개인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은 온라인 ▲전공박람회, ▲춤 전공 상담 ▲전공 Day 등 총 3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학교회 ‘도르가 장학기금’ 전달

삼육대는 삼육대학교회 도르가회가 장학기금 4000만원을 김일목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도르가회가 학교에 기탁한 누적 장학금은 6억 원에 육박한다.

1960년대 조직된 도르가회는 삼육대학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봉사 단체다.

도르가회는 지난 6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구제와 봉사 사업을 펼쳐왔다. ‘도르가장학기금’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누적액은 5억8813만원으로, 수혜 학생은 832명에 이른다.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 대학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서울사이버대 대학원이 오는 12월 8일까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전공 및 인원은 사회복지전공 58명, 상담및임상심리전공 98명으로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접수는 서울사이버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울사이버대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은 사이버대학 최초로 개설된 온라인 사회복지대학원으로,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실천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현진 기자